

수의사 사업소득 증가율 12.6% '전문직 1위'

반려동물 가구 증가세 맞물려 의료수요 늘어 사업 소득 1위 의사...이어 회계사, 세무사順 안도걸 "전문 직종 소득 평균보다 10배 높아"



년 3천145만원에서 2022년 8천116만원으로 5천만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의 증가세와 맞물리며 의료수요 또한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수의사에 이어 의사(8.3%), 노무사(8.1%), 건축사(6.0%), 약사(5.5%), 회계사(4.3%)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의사의 경우 같

은 기간 2억1천만원에서 4억원으로 2배 가까이 상승했다. 입시 현장에서의 대열풍이 숫자로도 확인된 셈이다. 주요 전문직 중 가장 높은 소득은 의사로 평균 소득 4억, 중위소득 2억7천만원으로 나타났다. 평균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돼 귀속된 사업소득 총액의 평균을, 중위소득은 신고자 중 상위 50%에 위치한 사람이 신고한 사업소득을 의미한다. 의사 다음으로는 회계사(2억2천만

원), 세무사(1억2천만원), 치과의사(1억원), 수의사(1억원), 한의사(1억원), 변리사(9천만원), 관세사(8천만원), 약사(8천만원), 변호사(7천만원) 순으로 높았다. 주요 전문직 중 중위소득은 의사에 이어 치과의사(1억6천만원), 회계사(9천만원), 약사(8천만원), 한의사(7천만원), 세무사(6천만원), 변리사(5천만원), 수의사(5천만원), 관세사(4천만원), 변호사(3천만원) 순으로 높았다. 전문직 업종 간 소득 격차 뿐만 아니

라, 업종 내 상위 소득자로의 '소득 쏠림' 현상도 나타났다.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보다 높은 직종은 의사, 회계사, 세무사, 수의사, 관세사 등의 순으로 특히 의사와 회계사의 '소득 쏠림' 현상이 심했다. 안도걸 의원은 "최근 모든 업종의 평균 사업소득은 1천900만원 수준인데 비해 10대 전문 직종의 평균 사업소득은 1억9천600만원으로 10배에 가까운 소득 격차를 보였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방송4법·노란봉투법·25만원법 재표결서 폐기

'尹대통령 거부권' 6개 법안 모두 부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방송 4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등이 26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되는 '정쟁의 굴레'가 또다시 되풀이된 것이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방송법(찬 189·반 107·무 3)·방송문화진흥회법(찬 188·반 109·무 1·기 1)·한국교육방송공사법(찬 188·반 108·무 3)·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찬 189·반 108·무 2) 등 '방송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민생회복 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찬 184·반 111·무 4),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찬 183·반 113·무 2·기 1) 등 6개 법안은 모두 부결됐다. 재의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들 법안은 지난 7·8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달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국회로 되돌아왔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야권의 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노란봉투법'은 '불법과업조장법'으로, '25만원 지원법'은 '위헌적이면서 효과는 작은 현금살포법'으로 규정하고 반대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각 법안을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저지법', '노동자 권리 보장법', '민생 부양을 위한 심폐소생법안'으로 규정하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을 밀어붙였다. 이에 민주당이 이들 법안을 재발의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대통령 재의

요구 및 국회 재표결 수순이 끝이 없는 듯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앞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재표결도 앞두고 있다.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이들 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올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야당 법안 발의→야당 단독의결→대통령 거부권 행사→재표결시 여당 반대에 따른 부결→재발의'로 이어지는 '헛바퀴 정쟁 공식'은 당분간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날 부결된 법안 중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이미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수순을 밟아 폐기 처분된 바 있다. /연합뉴스

비수도권도 '반도체특구' 지정 가능해진다

정진욱 '기업 경쟁력 강화 2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사진)은 26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방에 '반도체산업혁신특구'의 지정 근거를 마련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안에는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반도체경쟁력강화위원회'를 두

고 '반도체산업혁신특구'를 지정해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및 국내외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기술 개발과 설계·제조·공급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또한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 개발, 기반 시설 구축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를 명시한 조항도 추가했다. 특히 특별법은 수도권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방에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도록 해 주목된다. 정 의원은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국가 첨단전략 기술을 보호하고 육성한다는 취지로 규제 중심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 같은 규제는 국내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 있으며 반도체산업 발전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AI 국가 총력전' 선포

국가인공지능위 출범식 "AI 3대 강국 도약"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대한민국을 오는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며 'AI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다. ▶관련기사 13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인공지능 대전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범국가적 핵심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민·관 협력의 구심점"이라며 "나라의 명운이 걸린 AI 전환을 선두에서 이끌며 우리나라를 AI 3대 강국으로 도

약시키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직접 위원장을 맡아 국가AI위원회를 이끌면서 AI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 30명과 장관급 정부위원 10명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AI 관련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또 "저작권과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핵심 가치는 지키면서도 혁신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연구 개발과 인프라, 법·제도 등 모든 분야에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尹대통령 지지율 25%...소폭 하락' '김여사특검법 찬 65% vs 반 24%'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전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5%였다. 이는 3주 전 조사와 비교해 2%p 떨어진 수치다. 국정 방향성 질문에 '올바른 방향'이라고 한 응답자는 6%p 떨어진 25%였고, '잘못된 방향'이라고 한 응답자는 2%p 오른 68%였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필요성을 묻는 말에는 65%가 찬성한다고 했고, 24%가 반대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